

하루 바빠 '開關' 時代

[別乾坤] (1929년 7월호)

(註: 이 글은 <別乾坤> 創刊 十週年 紀念 祝辭임)

현나는 이즈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여 드릴 形便이 못되어 매우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진 풍파와 마주 싸워 十年間을 꾸준히 奮鬪努力하셨다는 것을……. 그리하여 十週年 紀念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感祝하며 앞으로는 한시라도 바빠 '開關' 時代와 같이 되기를 바라마지 아니합니다. (나보다도 勿論 여러분이 더욱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일상 앞서 雜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開關社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이야기려니와 開關社에 여러분의 不屈하고 꾸준히 싸워나가는 努力이며 紙面이 넘치는 誠意를 感歎치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탁할 것은 앞으로도 前보다 더한 努力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